

중수하였다. 1686년(숙종 12)에는 제기고(祭器庫)가 지어졌으며, 1732년(영조 8)에 대성전과 명륜당이 중수되었고, 1742년(영조 18)에 비로소 동·서무가 지어졌다. 1869년(고종 6)에는 동·서무와 태화루(太和樓)가 중수되었고, 1886년(고종 23) 가을에는 대성전과 명륜당이 수리되었다. 대성전은 정면 5칸, 측면 3칸 규모로, 양 측면에 풍판을 단 맞배기와집이다. 정면은 외일출목(外一出目) 이익공(二翼工)의 겹처마로 되어 있으며, 배면은 무출목(無出目) 이익공(二翼工)의 홑처마로 되어 있다. 명륜당은 정면 5칸, 측면 2칸 규모의 팔작기와집이다. 동·서무는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로, 홑처마의 맞배기와집이다. 태화루는 정면 5칸, 측면 1칸 규모의 2층 누각 건물로 맞배기와집이다.

5. 전설

하리(下里)·하성리(下城里)·하성저리(下城底里)는 모두 이 마을의 옛 지명이며 평해성터(平海城址) 아래에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옛날에 정씨(鄭氏)가 다래밭 덩굴이 우거진 이곳을 처음 개척하였다고 전한다.

제14절 평해3리(平海三里)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은 청학산(靑鶴山), 북쪽에는 반월산[半月山, 딱재]이 있고, 그 사이로 평해안들[남대천제방 북쪽 들]이 마을 앞에 펼쳐있다. 동남쪽은 둔기산(屯起山)과 빗뒤마을(雨後里), 뒷산 사이에 평해평야가 있으며, 남대천이 들 가운데를 지나 동해로 흐르고 있다.

북쪽은 평해 1리와 인접하고, 서쪽은 송릉구릉(松陵丘陵)과 청룡산(靑龍山)[삼달리에서 봐서 청룡산을 뒤로 동향(東向)으로 형성된 마을이다. 마을회관은 1983년도에 건립되었다.

2. 마을의 역사

1944년 평해리에서 분구(分區)되어 평해3리가 되었다. 1980년 12월 1일[대통령령 제 10050호]에 평해면이 읍으로 승격되어 평해읍 평해3리가 되었다.

3. 가구 분포

총 142세대가 거주하며 평해 손씨(平海孫氏), 평해 황씨(平海黃氏), 안동 김씨(安東金氏) 등이 세거하고 있다.

4. 마을의 특징

1) 동제(洞祭)

음력 정월 15일, 음력 9월 9일에 동제를 지내는데, 정월 대보름날의 제사는 엄선된 제관이 14일 밤에 제사를 올리고 15일 아침에 동민이 모여 음복을 한다. 음력 설날에는 마을 어른들을 마을회관에 모시고 합동으로 세배를 하며 음식을 대접한다. 단오절에는 평해읍 전 주민이 남대천 둔치에서 평해단오제를 펼친다.

5. 전설

1) 송릉(松陵)

마을 뒷산의 능선에 노림(老林)이 우거져 있었다 하여 송릉(松陵)으로 부른다.

2) 생기편

고려 공민왕(恭愍王) 때에 딱발재(半月山楮田)에 있던 평해향교를 1407년(태종 7) 당시 평해군수 김한철(金漢哲)이 송릉(松陵) 추기곡(雛基谷)에 이진(移建)한 후부터 향교편이라 부르던 것을 생기편으로 개칭하였다.

제15절 학곡1리(鶴谷一里)

1. 마을의 자연환경

서쪽은 청룡산(靑龍山)과 삼성산(三聖山)[금곡산(金谷山)] 기슭의 삼달1리, 2리와 평해리와 접하고 그 사이로 남대천(南大川)이 평해평야를 거쳐 동쪽으로 흐르고 있다. 남쪽은 학곡2리와 다티재[多峙고개]가 있으며, 그사이에 7번국도가 남북으로 통하고, 북쪽은 반월산(半月山), 동쪽은 청학산(靑鶴山)을 뒤로 하고 서향으로 위치한 마을이다.